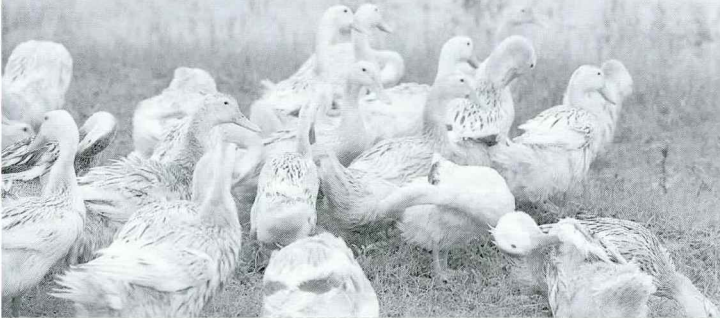


왜? 오리 산업을 주목해야 하나?



축산신문 이희영

오리 산업의 현주소는?

최근 축산업계는 물론 국내 거의 모든 산업계는 한·미FTA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만큼 한·미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축산업계도 예외일 수 없으며 당장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들은 한·미FTA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있어 업계는 물론 관계당국이 협상진행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오리 산업의 경우 그 동안에 오리업계가 걸어왔던 것처럼 여론과 정책당국의 외면 속에서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해 노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리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2005년 농산물 생산액 중 당당히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주요 농축산물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축산물 중에서는 양돈, 한육우, 산란계, 육계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책적으로 소외돼 왔음에도 연도별 오리 생산액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3백75억2천만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현재 6천4백90억 원으로 무려 17배 이상이 급성장했다.

오리 산업은 지난 16년 동안 단 3차례만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뿐 매년 성장해 왔고 이 같은 성장이 타

품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다는 점에서 오리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2003년 말과 2004년 극심한 불황을 극복한 이후에는 2005년도에는 전년대비 40% 이상 신장세를 보였다. 올해 역시 3/4분기 말 현재 도축물량만 놓고 볼 때는 40%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오리 사육동향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90년도 71만6천 수에 불과했던 사육수수는 91년 1백18만8천 수로 1백만수를 넘어선 이후 4년만인 95년 2백만 수를 넘어섰고 이듬해인 96년에는 3백만 수를 넘었다. 이후 다소 주춤하던 사육수수 증가는 98년 이후부터는 매년 1백 만수 이상씩 증가했으며 2003년에는 사상 최고인 9백만 수를 넘어서기도 했다. 2005년 현재 8백33만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최근 오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한우, 양돈, 양계 등 주요축종의 성장세(사육두수 기준)가 정체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리업계는 물론 축산업계 전체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축산업계를 둘러싼 각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리 산업의 경우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반증이며 농가 소득측면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리고기가 식품으로써의 우수성이 점차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웰빙식품으로서 각광받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오리 산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오리 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이처럼 오리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제 질적인 성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오리업계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관련업계, 정책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오리 산업이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업계 지구적인 노력만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오리 산업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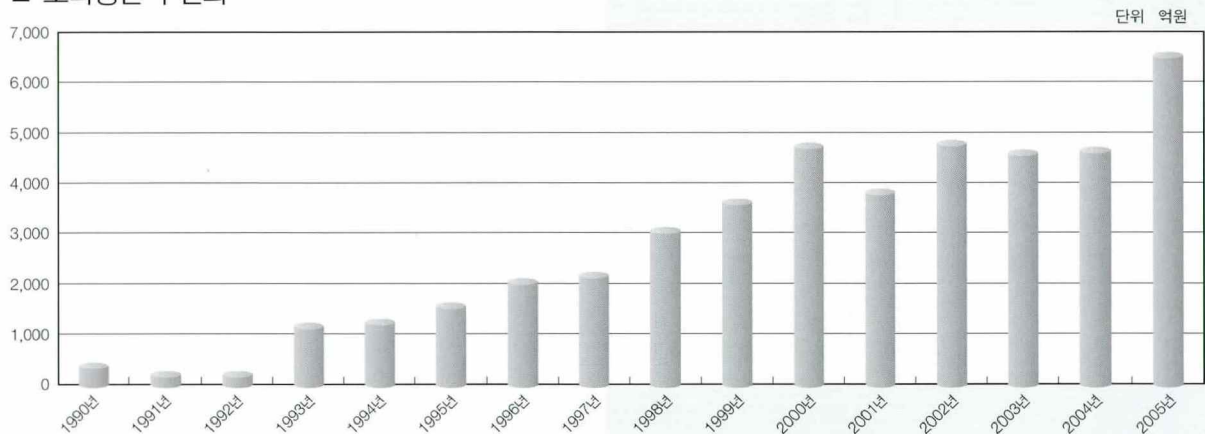
예를 들어 농림생산액의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축산물 생산비 등 각종 정부 통계에서 제외돼 있으며 오리에 비해 생산액이 낮은 농산물 품목들도 실시되고 있는 관측사업에서도 제외돼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오리관련 통계는 주요 축종의 경우 분기별로 실시되는 것과 달리 1년에 한번 기타가축 통계에서만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과잉생산과 구조조정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오리업계가 당면한 문제로 2005년 현재 오리사

■ 오리산업 동향

연도	생산액(단위, 억원)	사육수(단위, 천수)	사육농가(단위, 백호)
1990년	375	716	138
1991년	2,010	1,188	145
1992년	2,118	1,045	127
1993년	1,169	1,032	98
1994년	1,174	1,698	83
1995년	1,536	2,357	94
1996년	2,035	3,465	86
1997년	2,162	2,709	90
1998년	3,048	3,167	88
1999년	3,613	4,787	126
2000년	4,743	5,133	129
2001년	3,820	6,715	128
2002년	4,749	7,823	116
2003년	4,595	9,017	99
2004년	4,637	8,265	84
2005년	6,490	8,389	89

■ 오리생산액 변화



육농기수가 8천9백21농가로 평균 사육수수는 9백40수로 아직 영세 농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2003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방역당국에서 오리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나서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일선현장에서는 외면 받고 있다. 아울러 오리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연구는 물론 학계에서조차 외면 받아 오면서 오리관련 연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축개량사업에도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원종(GP)에서 생산된 종오리(PS)를 이용해 육용오리를 생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대잡종(F1)으로 생산하는 육용오리의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로 종오리 개량과 능력검정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한 국내 축산관련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축산연구소도 금년도에 겨우 2명의 오리전문 연구원을 배치했을 정도로 오리관련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현실은 별도의 오리표준축사 설계도조차 없다는 점이 오리업계가 그 동안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리표준축사 설계도의 부재는 오리 농가들이 각종 재해 발생 시 정당한 보상은 물론 피해를 키워왔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최근 들어 오리관련 다양한 제품들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오리고기는 전통적으로 가든형 소비 형태로 아직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 오리업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은?

오리 산업이 그 동안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한·미FTA, 타 품목과의 경쟁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지금까지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 산업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양적, 질적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선 최근 몇 년 사이에 웰빙 추세가 확산되면서 육

류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들이 오리고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오리고기의 우수성은 이미 학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입증됐으며 소비자들은 오리고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축산업계 내부적으로 갈수록 환경규제로 인한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는 오리농법 등 친환경 축산에 가장 적합한 축종 중에 하나라는 점이다. 이처럼 앞으로도 오리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와 같이 오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리업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생산측면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오리고기 생산을 위한 업계의 지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안전한 오리고기 생산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업계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유지하고 수입 오리고기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유통측면에서는 오리고기 보다 대중적인 메뉴로 다가서기 위한 다양한 요리개발이 필요하며 업계 스스로 오리고기 소비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자조금을 조속히 도입해 소비자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는 수입육과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품목 간에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그 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에 오리관련 정책의 개발을 위해 업계가 스스로 나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책 당국이 그 동안 오리업계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그만큼 오리업계가 정책당국에 요구가 적었다는 반증이며 지금부터라도 업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에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 오리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리협회를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오리관련 연구소 및 학계에 오리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재개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오리 산업이 돈이 된다는 인식을 축산관련 언론 등을 통해 관련업계 및 정책당국에 적극 알려야 하겠다.